

# 해남군, 내년 국·도비 3천595억 확보...현안 사업 '청신호'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해남군이 주요 역점사업의 국·도비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3천595억원을 확보해 현안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해남군에 따르면 정부 예산의 긴축재정 편성 기조로 신규사업의 예산편성이 대폭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본예산 기준 5년 연속 3천억원 이상의 국·도비를 확보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장기성장동력 확보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명현관 해남군수는 물론, 전 공직자가 전

남도와 함께 각 부처 및 기재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필요성을 적극 설득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해남군의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위한 ▲문내 예탁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1억원(총사업비 486억원) ▲화원 월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원(총사업비 388억원) 등이 반영됐다.

계속 사업으로는 ▲복일 운전(총사업비 99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

역대 최대 기록...5년 연속 3천억대 국·도비 확보

자연재해 대비·탄소중립 등 신규·계속 사업 반영

비사업 ▲해남 북평(총사업비 186억원) ▲현산 고현(총사업비 220억원) ▲삼산구림(총사업비 200억원) ▲화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총사업비 456억원) 등을 포함해 총 7개 관련 사업이 추진된다.

민선 7기부터 역점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하수도 보급을 개선 위한 사업과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도 확대된다.

신규사업으로 ▲화산 해상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억원(총사업비 288억원) ▲해남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5억원(총사업비 100억원)이 반영됨으로써 계속사업을 포함해 20개 사업 28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농어업의 미래산업 전환과 신산업 연계를 통해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고 단

소중립의 중심 산업으로서 농업 농촌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예산 확보도 눈에 띈다.

신규사업으로 ▲산재생에너지 보급·복합 지원사업 9억원(총사업비 40억원)을 포함해 계속사업으로는 ▲해남군 탄소중립 에듀센터 조성 16억원(총사업비 425억원)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건립 10억원(총사업비 504억원)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17억 7천만원(총사업비 471억원) 등이 반영돼 농어업 분야 지속가능 발전을 이끌게 됐다.

올해 기재부 예비타당성 통과한 광주

-완도 고속도로 2단계 조성 사업과 신안 압해-화원 국도77호선 연결도로 개설 등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위한 대형 SOC사업도 예산이 반영돼 순항 중이다.

명현관 군수는 "내년 정부예산은 감액 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어려움 속에서 해남군이 역대 최대 국·도비를 확보한 것은 지역의 장기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곧바로 2025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준비에 돌입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 기자



영암군이 최근 군청 왕인실에서 'RE100영암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기본소득과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 영암군, 재생에너지 전환·탄소중립 실현 '박차'

'RE100' 비전 선포...2050년까지 100% 전환 목표 제시

분산에너지 개발·수익 모델 창출 등 지속가능 기반 마련

영암군이 'RE100영암 비전선포식'을 통해 2050년까지 지역 내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 기본소득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제시했다.

15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왕인실에서 영암군민, 기업 임직원, 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RE100영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비전의 주요 내용은 2035년까지 40%,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환, 군민 이익 공유 및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탄소중립 실현 등 지속가능한 영암을 구축하는 것이다.

RE100영암 비전선포식에서 영암군은

세부 전략으로 ▲에너지 대전환 가이드라인 수립 ▲영암형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시행 ▲RE100 산업단지 및 분산에너지 모델 개발 ▲영암 에너지 자금 조성·관리를 발표했다.

먼저 에너지 대전환 가이드라인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지속가능한 주민 에너지 수익모델을 창출하기로 했다.

영암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로는 재생에너지 도입의 제도적 장애와 주민 수용성을 해결하고,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등 지역사회 이익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RE100 산업단지·분산에너지 모델로

는 분산에너지 연계 섹터커플링 기술인 V2G, P2G, P2H 등을 도입해 산업기반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RE100달성을 위해 영암군은 '대불산단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 '미래지역 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영암국민체육센터에 태양광 500kW 규모의 군민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이며 확산면 신안마을과 서호면 송산마을에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군민과 기업, 단체의 광범위한 노력과 참여로 함께 RE100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 기본소득과 탄소중립 생활 실현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영암을 만들자"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 목포시민연대 "화장장 민간위탁 수정동의안 부결 촉구"

공공성 강화 외면...운영기간 단축 민간위탁 강행 비판

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가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수정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촉구했다.

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는 15일 "목포시의회가 승화원의 직영이 가능함에도 민간업체에 재위탁하는 것은 공공성을 위면하고 행정 편의성을 우선시한 결정이라 판단해 부결한 것"이라며 "최근 목포시의회 의회 공공성 강화 요구를 위

면한 채 위탁 기간만 단축해 민간위탁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연대는 "목포시는 지난 13일 화장장 민간위탁 관련 수정동의안을 목포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수정동의안에는 민간 위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직영 운영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목포시

가 '화장대란'이라는 갑박성 문구로 시민 불안을 조성하며 특히 의혹이 있는 수정동의안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화장장의 본래 취지인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목포시의회가 수정동의안을 반드시 부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연대는 오는 16일 목포시의회를 방문해 상임위원회와 의정관계에 내용을 전달하고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후 목포시에도 수정동의안 철회와 직영 운영 전란을 요구할 방침이다. /목포=정해선 기자

## 강진군, 깨끗한 수돗물 공급 '주력'

강변여과수 개발 본격 추진...총 사업비 118억 확보

강진군이 모래와 자갈층을 통해 하천수의 오염물질을 제거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나섰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2025년 신규사업에 선정돼 도비 89억원을 포함 한 총사업비 118억원을 확보했다.

강변여과수는 하천 주변의 모래층을 자연여과막으로 활용해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생활 용수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자연의 정화 기능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기술로, 기존 수돗물 취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강진군 하천 인근에 수직정 및 관련 기반 시설을 설치해 강변여과수를 안정적으로 취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연을 활용한 친환경 기술 도입에 앞장서며 지속가능한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 '전남 최초' 무안군, 쇼핑몰 자율주행 배송 로봇 개발

IoT 기술 접목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구역까지 배송 서비스 제공

무안군이 고객의 쇼핑 물품을 수거해 주차구역까지 배달하는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했다.

15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롯데아울렛 남약점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유효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정현구 무안부군수, 롯데아울렛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소 기반 자율주행 로봇배송 사업 실증 시연회'를 개최했다.



최근 롯데아울렛 남약점에서 열린 주소 기반 자율주행 로봇 배송 시연회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쇼핑 물품을 수거해 주차 구역까지 배달하는 모습. <무안군 제공>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2024년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 기반 혁신산업 창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됐다.

쇼핑몰 이용객 중 유아를 동반한 고객,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이 불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로봇이 쇼핑 물품을 수거해 주차구역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연회는 유아를 동반한 고객이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율주행 로봇 배송을 신청하면, 로봇이 각 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수거해 주차장 배달존까지 전달

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자율주행 로봇은 주소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실내 지도를 활용해 매장과 도착지 간 최적 경로를 이동하며, IoT 기술을 통해 엘리베이터 호출 및 자동문 연동 기능을 지원해 층간 이동과 실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쇼핑 매장 내 상세 주소판과 사물주소판을 부착해 주소 정보 활용성을 높였다. 특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

춰 캐리커화한 주소 기반 자율주행 로봇 '로보핑'을 활용한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며, 로봇의 편의성·활용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정현구 무안부군수는 "신기술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모델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며 "군민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소 기반 기술과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 완도군, 인구·청년 정책 활성화 '총력'

89개 사업 중 28개 문제점 분석

실효성 있는 중앙기인구정책 수립

완도군이 인구·청년 정책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인구소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5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김현철 완도부군수를 주재로, 인구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부서의 실무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청년 정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완도군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4만 7천72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고회에서는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89개 사업 중 28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구·청년 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년 공공 임대 주택 및 가족센터 건립 ▲신혼 부부·다자녀 가정 주거 비용 지원 ▲출산 장려 양육 지원 ▲청년·귀농 귀어인 정착 지원 ▲지역 인재 육성 인 대우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고회에서는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89개 사업을 비롯

로 청년 정착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주택 보급, 출산 장려 정책, 생활 인구 확대 정책 등 차별화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철 부군수는 "인구 감소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 계획 수립과 인구 유입, 유지 관리 등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 영광군 "연말 '떡깨비'로 주문하세요"

공공배달앱 최대 5천원 할인 쿠폰 지급

영광군은 15일 "연말을 맞이 공공배달앱 '떡깨비'로 주문하면 최대 5천원 즉시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사람당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에서 발행한 자체 할인쿠폰이

있는 경우 중복 적용돼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떡깨비는 총선 시 10% 인센티브를 받는 영광사랑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전남도에서 이달 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남 물가안정 민생경제 회복 캠페인 시즌' 이벤트와 중복 적용돼 최대 1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영광군 관계자는 "연말을 맞이해 진행되는 특별 이벤트인 만큼 떡깨비로 주문해서 할인 쿠폰도 받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착한 소비에도 많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